

2.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장 대화이다. 갑, 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감각이 상실되는 것으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상관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① 갑: 죽음의 고통은 폐력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 ④ 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 ⑤ 갑, 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법이 있어도 권력이 없다면 또는 권력이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을: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 이에 사람들은 재산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된다.

- ①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불가하다.
- ② 국가는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합의의 산물이다.
- ③ 국가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국가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 권력체이다.
- ⑤ 국가는 자연의 산물로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민 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향의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법과 제도의 부정의한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물을 창출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저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창출한 생성물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식화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독창성만 인정되면 저작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독자적 사고를 하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되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을: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공지능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독창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②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가?
- ③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④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만은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⑤ 약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모두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베이컨의 명제대로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장차 태어날 자손에 대한 권력도 증대시킵니다. 후손들이 이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은 극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행사된 권력은 주인의 손을 떠나 계산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며 본질적으로 맹독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권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보기>

- ㄱ. 기술 권력 앞에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 ㄴ. 기술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 ㄷ. 기술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계적인 윤리는 도덕에 대한 남성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선다.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른 목소리'를 찾으려 할 때 도덕 논의에 있어 주된 문제는 어떻게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살피려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전환된다.

- 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의 핵심 요소는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다.
- ②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여 도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③ 여성의 도덕성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④ 여성의 도덕성은 상호 의존성보다 이타심으로 함양해야 한다.
- ⑤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1	③	12	②	13	①	14	④
16	①	17	①	18	⑤	19	③

도덕적 지

16. [출제의]제시문은
체를 승배
으로 본다**해설****1.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이론 윤리학, 을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정립하여 도덕적 삶을 살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2. [출제의도]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고,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순수한 영혼으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상가 모두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3. [출제의도] 국가에 대한 흄스와 로크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흄스, 을은 로크이다. 흄스와 로크는 모두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국가를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합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풀스와 싱어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풀스, 을은 싱어이다. 풀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정보 기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을은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출제의도] 과학 기술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을 파악한다.

그림의 강연자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기술 권력의 행사로 인해 인류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었으므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분배 정의에 대한 풀스와 노직의 입장을 비교한다.

(가)의 갑은 풀스, 을은 노직이다. 풀스와 노직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절차나 과정이 정의로운 분배는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정의롭다고 보았다. 풀스는 사회를 협동 체제로 보았고, 노직은 사회를 개인들의 자발적 교환 체제로 보았다.

8. [출제의도] 성과 윤리에 대한 길리건의 입장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길리건의 주장이다. 길리건은 도덕 문제에 접근할 때 기존의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적 접근에 여성 중심의 배려 윤리적 접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사회 윤리에 대한 니부어의 입장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니부어의 입장이다. 니부어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억제와 내면적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비폭력적 방법만으로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ㄷ. 니부어는 폭력이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직업윤리에 대한 마르크스와 맹자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마르크스, 을은 맹자이다. 마르크스와 맹자는 모두 직업 노동의 경제적 측면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노자, 석가모니, 공자의 입장을 비교한다.

갑은 노자, 을은 석가모니, 병은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실현하여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聖)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갑은 풀스
고, 싱어는
인 원조가**18. [출제의]**갑은 예술
갑은 예술
치만 추구**19. [출제의]**신문 칼럼
다고 우려**20. [출제의]**(가)의 갑
보았고, ㄹ